

바다무지개

2015년 9월 초

추석 - 음력 08월 15일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부르는데,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의미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어 추석은 그달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추석은 신라시대에 길쌈놀이인 ‘가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삼한시대에 하늘에게 감사를 올리는 제천행사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유력합니다.

즉, 추석은 동맹, 영고, 무천, 계절제, 단오 등의 제천행사가 시간이 흘러 오늘날에 추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표음식

대표음식의미

송편	- 편에는 콩, 팥, 밤, 대추, 깨 등을 넣어서 만들고 송편을 찰 때 솔잎을 넣고 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향을 은은하게 내며 송편이 서로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삼색나물	- 삼색나물은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나물인데 삼색나물의 의미는 먼저, 뿌리나물인 도라지는 조상을 상징하고, 잎나물인 시금치는 자신을 상징하며, 줄기 나물인 고사리는 부모님을 상징합니다. 즉, 조상님을 알고 부모님을 알고 자신의 근본을 아는, 조상과 부모를 섬기는 자식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과	- 약과의 약은 약이 되는 과자라는 뜻이고, 과는 과일을 뜻합니다. 즉, 과일보다 더 좋은 식품이기에 제사상을 놓는 음식인 것입니다. 과거 약과는 밤, 대추, 감, 새, 짐승 등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다가 조선시대 때에서 둥근모양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간식거리지만, 옛날 약과는 민간인들은 함부로 만들어 먹지 못하는 뱀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과에는 밀가루와 꿀, 그리고 참기름으로 만들어지는데 과거에 밀가루와 꿀은 귀한 요리 재료로 여겨져 약과가 사치품으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대표놀이

대표놀이의미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우리 고유의 정서가 잘 담겨있는 무형 문화유산인데 각 지역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어휘와 반복되는 후렴 등을 볼 때 어떤 무형 문화유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강강술래의 유래는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아군의 숫자를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한 것과 앞서 언급한 삼한시대의 제천행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가마싸움	가마싸움은 자매싸움 또는 가마놀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팀으로 나뉘어 각 팀의 대표의 지휘에 따라 점전을 하여 상대의 기를 빼앗아야 하는데요, 추석날 서당의 아이들이 편을 갈라, 바퀴가 4개 달린 가마를 앞세우고 양 편이 각기 상대방의 가마에 접근하여 먼저 가마를 빼앗거나 부수면 이기는 놀이입니다. 싸움에 이긴 편은 과거 급제가 많이 된다고 하여, 풍악을 울리며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흥을 돋우었다고 합니다.
거북놀이	거북놀이는 추서에 수숫잎으로 거북 모양을 만들어 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노는 민속놀이인데요. 두 사람이 둥근 명석을 쓰고 앉아 머리와 꼬리를 만들어 거북이 시늉을 하며 느린 걸음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거북이를 앞세우고 큰 집으로 찾아가 음식을 청하고 이때 주인은 음식을 내어 일행을 대접합니다



19번째 종합우승 및 5연패 달성한 선수단의 노고 격려... “능력중심 사회’ 구축에 많은 역할 당부”

2015년 08월 26일 (수) 10:20:56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과의 오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43회 브라질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선수, 국제심사위원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9번째 종합우승과 5연패라는 성과로 전 세계에 기능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국가대표선수단을 격려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앞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숙련기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대표선수들에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능력중심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 행사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MVP상(알베르트 비달상)을 수상한 서정우 선수와 우리나라에 제빵 분야의 첫 금메달을 안긴 유재희 선수가 대표로 우승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서정우 선수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1,200명의 선수들 중 최고 득점을 받아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일본·독일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해 우리나라에 3년 연속 MVP상을 선사했으며, 유재희 선수는 전통적으로 제빵 분야가 강세인 유럽선수들과 경쟁해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해외 전지훈련 등 적극 투자

“기능인을 집중 양성하고 있는 중국은 기능올림픽 우승자를 배출한 학교의 전교생에게 컴퓨터를 선물로 줄 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43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로 브라질(금메달 11개)의 추격을 간신히 따돌리고 19번째 종합 우승과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메달 집계 외에 각 종목 점수를 모두 더한 총점에서는 브라질에 밀려 2위였다.

단장으로 한국팀을 인솔한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59·사진)은 2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선수단에게 해외 전지훈련을 시키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1970년대 했던 것처럼 브라질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기능올림픽을 통해 기능인을 집중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는 기능인과 기능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 교민 응원도 거의 없었다는 것.



박 이사장은 “2위를 차지한 브라질 측이 과거 우리나라 기능인들이 브라질에서 기능인력을 많이 양성해 준 것에 큰 고마움을 표시했다”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한국 덕분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독일 스위스 일본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가들은 과거 기능올림픽의 강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참가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또 참가하더라도 메달 집계 순위는 뒤로 밀려나 있다.

[브라질 국제기능올림픽] 꿈같았던 올림픽 종합우승으로 막을 내리다!

[출처] [기특한 기자단/브라질 국제기능올림픽] 꿈같았던 올림픽, 종합우승으로 막을 내리다!|작성자 대한민국 숙련기술인
비행시간 28시간, 시차 12시간...

멀고 먼 이곳 브라질에서 우리 선수들이 시차적응과 싸워가며 경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드디어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폐막식에서 시상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를 수상하며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 폐막식 풍경 전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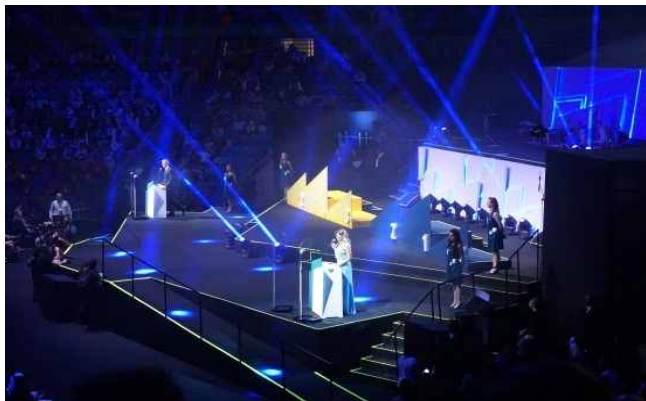
폐막식을 치르기 위해 선수와 관계자, 관람객들이 모여든 경기장 안은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경기장에 흐르는 음악에 맞춰 선수들은 자국의 깃발을 흔들며 연신 춤을 추었고, 관람객
역시 환호와 응원 구호, 파도타기로 선수들에게 화답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도 태극기를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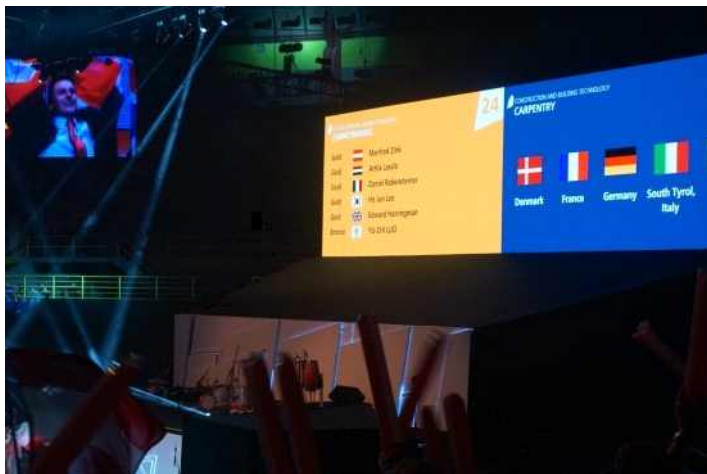
폐막식의 진행은 브라질 배우 Otaviano Costa와 여성 모델이자 방송 진행자인 Did
Wagner가 맡았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힘찬 진행과 관객들의 환호를 유도하는 소통이 인상
깊었습니다.



시상 방식은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시상대에서 이뤄졌는데요. 노란색과 파랑색 시상대에서 번갈아가며 먼저 시상 대상 국가들을 호명하고, 메달 결과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첫 금메달 시상 장면이 궁금하시죠?
가구와 목공 종목이 차례로 시상 대상 국가를 호명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



금메달에 이호준 선수가 호명되었습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함께 수상하는 다른 선수들과도 열싸안으며 기쁨의 환호를 하는 우리 선수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옆의 파랑색 시상대에서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구제작에 이어 목공 직종의 결과를 기다리던 차승우 선수 역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1등 시상대에 올라 힘차게 환호하는 우리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상식에서 단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 한국의 여성 선수들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화사하고 예쁜 한복 차림으로 시상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화훼 종목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가현정 선수가 예쁜 한복 차림으로 시상대에 올라 태극기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너무도 돋보이고 이쁜 장면이었습니다.



브라질 하면 빠질 수 없는 음악, 바로 샴바인데요. 폐막식의 중간 중간 브라질의 유명한 그룹 Monobloco가 무대에 올라 신명나는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두 사람도 무대로 나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보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누구나 샴바를 잘 춘다고 하는데요. 정말 흥이 많은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각국의 '우수 선수'를 호명하는 Best of Nation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력제어의 강민수 선수가 수상했는데요. 어떤 나라도 빠짐없이 기뻐하는 정말 축제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경기의 Albert Vidal Award, 즉 MVP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총 세 명의 선수가 고득점을 하여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정비 부문 서정우 선수도 당당하게 시상했습니다.

알베르트 비달 상은 1995년 도입되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경기까지 총 4번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말 꿈같았던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 뒤 '아부다비'를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가장 많은 금메달 수상자를 배출하며 좋은 결과를 냈지만, 금메달 수상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해 경기를 치룬 우리 선수들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딱 한 번 출전할 수 있는 국제기능올림픽을 위해 가장 빛나는 시기 청춘을 쏟아부어 노력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회 결과와 상관 없이 앞으로 늘 도전하고 꿈꾸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싸워가며 분투해 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덕분에 국제기능올림픽을 함께했던 우리 기특한 기자단도 정말 즐거웠고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특한 대한민국

이 기사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특한 기자단' 소속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기특한 기자단

김민주 기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eclus2123@naver.com

기술이 **특** 특별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있는
숙련기술인들의 다양한 기술 DNA를 깨우겠습니다.



기특한 기자단

조우진 기자

삼천포공업고등학교
juj1583@naver.com

기술이 **특** 특별한 대한민국

시간은 귀중한 자산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출처] [기특한 기자단/브라질 국제기능올림픽] 꿈 같았던 올림픽, 종합우승으로 막을 내리다!!작성자 대한민국 숙련기술인

[캄보디아EPS] NEWS

2015. 08. 06(목)

캄보디아EPS]매주목요일은 사전취업교육장으로 출근~8박9일 합숙훈련하는 동안 불편사항을 청취 개선하고, 근로계약체결.사증발급 등 송출비리 모니터링을 하며 우수한 캄보디아근로자가 송출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Vietnam EPS] NEWS

내년 최저 임금 합의 : 12.4% 상승

- 어제 (2015. 9. 3) 하노이에서 열린 세 번째 최저임금안 회의에서 협상자들은 수시간의 열띤 논쟁 끝에 합의에 도달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 12.4%를 승인 요청할 것이라 결정하였음.
- 최저임금 급지별 임금 수준 결정은 위원회 멤버들의 90%이상이 12.4% 인상에 표를 던진 후 오후 12:30에 종료됨.
- 이전 두 번의 회의에서 노동총동맹은 16.8% 임금 상승을 원하는 반면 고용주 대표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이보다 낮은 9-10%의 상승을 주장했음.
- 세 번째 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의장이자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인 Pham Minh Huan는, 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힘.
- 내년 임금인상율은 올해 수준이며 최저 생활 수준의 80% 이상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에 제출될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 1급지 월 350만동(40만동 상승), 2급지 310만동(35만동 상승), 3급지 270만동(30만동 상승), 그리고 4급지 240만동(25만동 상승)임.
- 재계는 낮은 임금 상승을 원했으나, 위원회안에 따른 정부의 승인안에 따를 것이라고 상공회의소 부회장 Hoang Quang Phong은 밝힘.
- Phong에 의하면, 기업들은 임금 인상과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인상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 함. 상공회의소는 사회보험 지급을 낮추는 안 및 노동자 수입에 기초하여 사회보험을 지급하도록 하는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음.
- 16개 산업 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은 10%, 심지어 일부 기업의 경우 6-7%의 임금상승만 감당할 수 있다 함.
- 노동총동맹 부회장 Mai Duc Chinh는 노동자측은 12.4%향상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함. 다만 상승률이 올해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적절하며 노동자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 실제 많은 노동자들은 고용계약에 의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음. 그러나 Chinh은, 기업들이 2018년부터 고용인의 실임금에 기초하여 사회보험료를 계산, 지급하게 되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밝힘.
- 베트남 섬유유류협회 회장 Vu Duc Giang에 의하면, 위원회가 결정한 상승률은 현지 섬유 및 의류 회사에 엄청난 압박을 줄 것이며, 업계가 사회보험으로 6조동 및 노동조합 비용에 4,500억동의 추가 지출이 있을 것이라 밝힘.

[출처 : The Saigon Times No. 5010, Sep 4, 2015]

CFC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소식

귀국 지원 교육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분들과 함께 귀국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귀국지원 교육을 위한 강사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의 "이선정" 과장님께서 교육을 실시 해 주셨습니다.

일 시 : 2015. 08.09(일)

10:00 ~ 11:00

장 소 : 센터 다목적 홀

내 용 : Happy Return 외국인근로자의 행복한 귀환을 위한 귀국지원프로그램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여 직접 외국인근로자분들을 찾아가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어로 대화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 시 : 매주 일요일 16:00~17:00

장 소 : 창원침례교회

대 상 : 필리핀 외국인근로자 12명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함원침례교회



직무능력향상 학습의날 Wednesday(매주 수요일)



08.12

- * 행복속담 [Ang ampalaya kahit anong pait, sa nagkakagusto' y matamis] - 필리핀
- * “내일의 실현” 계획
- * 2015 창원시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업무분장 중간확인 및 분석

08.19

- * 8월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08.26

- * 행복속담[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 한국
- * 2015 8월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

우즈베키스탄 자국민협일 바다무지개 탁구대회

개인단식 예선전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5 바다무지개 동아리 탁구대회 단식 예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8개국 예선전 통과대표 외국인근로자들이 참가 해 주셨는데요, 모든 참가자분들께서 뛰어난 탁구 실력을 발휘해주셔서 여느 대회 못지않은 멋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복식 2인1조 예선전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5 바다무지개 동아리 탁구대회 복식
예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8개국 각 2명씩 모두 16명의 외국인근로자분들이 참가해주셨는데요,
모든 참가자분들께서 뛰어난 탁구 실력과 화이팅을 외치며 열정적으로
경기에 참가해주셨습니다.



결승전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한달동안 진행되어온
2015 우즈베키스탄 자국기념일 행사 바다무지개 탁구대회의 최종 결승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식 결승에서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복식 결승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각 국가별 대표들이 뛰어난 실력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결승전 다운 멋진 경기와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종목	순위	국적	이름
단식	1위	인도네시아	카미드
	2위	중국	박정수
	3위	베트남	뚜안
복식	1위	베트남	베트남 Team
	2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Team
	3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Team



우즈베키스탄 자국기념일 행사 전통음식 커뮤니티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5 경상남도 외국인 주민 자국기념일 행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전통음식 커뮤니티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볶음밥인 "쁠로프" 두툽한 고기, 고소한 밥과 토마토를 비롯한 각종 야채와 소스가 어우러진 보기만해도 먹음직스러운 볶음밥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자국기념일을 축하하며 센터를 방문하는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분들이 함께 우즈베키스탄 전통음식을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3차 뽕뽕뽕 · 금의환향 “Happy Return” workshop

행 사 명	뽕뽕뽕·금의환향 귀국지원 워크숍
일 시	2015년 08월 23일(일) 08:00 ~ 21:00
주 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주 관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장 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및 경남 산청 소재 래프팅
대 상	2015년도 출국예정 외국인근로자 51명

- 외국인근로자 중 2015년도 취업활동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와 연계 체계 구축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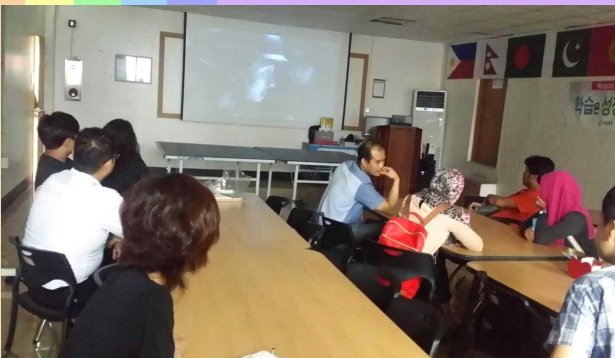
1. 개별 면담을 통해 근로자가 한국생활에서 느낀 점, 본국 입국 후 향후 계획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근로자의 생각과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 출국예정정신고서 및 출국만기보험 지급 신청서 역시 미리 작성 해봄으로써 출국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3. 이외에도 한국에서의 마지막 추억만들기를 위한 래프팅을 통해 한국의 좋은 모습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

영화감상 동아리



창원의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분들과 함께
한국어 수업 이후 영화를 관람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인도네시아 영화인
"RAID"

신나는 액션 영화를 보면서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래교실 동아리



창원의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분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한국어도 배우는
노래교실 동아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노사연의 '만남'
노래 가사처럼
외국인근로자분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만드는
창원의국인력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교육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분들과 함께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산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과
직업병에 대해서 알아보며, 건강하게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8월 생일파티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8월 생일을
맞이한 외국인근로자분들과 함께
생일축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외국인근로자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력분들께서도 함께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제목 :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보상금수령 관련 정보 공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상담개요

- 인도네시아 근로자 A씨는 ○○호 선박에서 근무 중에 선박 내의 줄에 팔이 꼬여 왼쪽 팔이 골절되었음. 2013년 6월 2일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어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금속 내 고정물 제거술을 받기 위해 센터로 보험 청구 절차를 문의해 옴.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는 2013년 4월 16일부터 전남 완도군 노화읍 소재 ○○호에 취업된 후 2013년 6월 2일 새벽 5시 경에 조업하다 선박 내에서 줄에 꼬여 팔을 다치게 되었음. 좌측 전완부 요척골 골절(왼쪽 팔뚝 앞부위 골절) 진단 후 1차 수술을 받음. 수술 후 수술부위 부작용으로 심하게 붓고 통증이 있어 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 수술 및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요양 신청 및 상병급여 신청을 하여 수술비 및 입원비 전액을 지원 받고, 2014년 4월 9일 상병급여 2,742,338원을 수령한 바 있음. 금년 6월 22일 금속 내 고정물 제거 수술을 위해 사업주 허락하에 친구가 근무하는 창원지역으로 이동하여 본 센터를 방문한 사례임. 근로자가 제거술을 받기 전에 수술 병원 및 상병급여 등을 문의해 옴.

2. 상담포인트

-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청구하는 제조업과 달리 별도로 선주가 들어놓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의거하여 요양급여 및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근로자 A씨의 경우에는 내고정물 제거에 해당하여 재요양으로 기재해야 함. 최초요양, 재요양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재요양 신청시 관할 공제보험지부(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관할 지역본부가 전남본부이기에 진도군 수협을 거쳐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로 신청단계가 복잡하여 One-stop 서비스가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음.



수협소개

열린수협

수협방송·홍보

정보공개

지식정보

고객서비스

고객서비스 > 자료실 > 정책보험 자료실

고객서비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사전뉴스

이벤트·공모전

자주묻는질문

전자민원창구

신고센터

자료실

▶ 정보자료실

▶ 회원조합 경영공시

▶ 정책보험자료실

정책보험 자료실

제목



번호	제목	작성일	파일
38	상병급여청구서	2010-10-15	
37	일시보상급여청구서	2010-10-15	
36	요양비청구서	2010-10-15	
35	요양연기·기타신청서	2010-10-15	
34	요양신청서	2010-10-15	
33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	2010-10-15	
32	진료비·약제비 의료신청서	2010-10-14	
31	약제비내역서(약국)	2010-10-14	
30	진료비내역서(한방)	2010-10-14	
29	진료비내역서(양방)	2010-10-14	

서식경로 : 수협중앙회 > 고객센터 > 정책보험자료실 > 요양신청서, 요양비 청구서, 상병급여 신청서

□ 청구시 필요한 서류

- | | |
|-------------------|-------------------|
| 1. 요양신청서(최초, 재요양) | 2. 의사소견서(최초, 재요양) |
| 3. 상병급여청구서 | 4. 외래내역서 |
| 5. 입원내역서 | 6. 입원확인서 |
| 7. 외국인등록증 | 8. 진료비납입확인서 |
| 9. 약제비내역서 | 10. 통원확인서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3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어선원등의 재해로 인하여 이 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③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으면 중앙회는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7.]

조문체계도버튼 제31조의2(미지급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을 말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9.5.27.]

조문체계도버튼 제31조의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중앙회는 요양하고 있는 어선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결정을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애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보험가입자와 어선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험급여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필리핀 일로일로 모자보건사업 통계집 발간 행사 개최

2015-08-04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는 8월 3일, 필리핀 중부지역에 위치한 일로일로 주정부 청사에서 '일로일로주 지역보건역량강화사업(13-16/700만불)' 모자보건 통계집 행사를 개최했다. 동 행사에는 코이카 필리핀사무소 홍희수 부소장과 일로일로주 Dr. Raul Banias 행정관, Dr. Marlyn Convocar 보건부 지역국장을 비롯, 사업대상지 9개 Municipality(우리나라 행정구역단위 '군'에 해당) 시장과 보건소장,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모자보건사업 통계집 발간 및 코이카 사업지원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리핀은 인근 아시아 국가 대비 모성사망률이 높은 편으로, 특히 일로일로주에 위치한 코이카 사업 대상지역은 지리적으로 낙후? 고립된 마을(GIDA, geographically Isolated and Disadvantaged Areas)이다. 동 지역 산모들은 의료시설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조산사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분만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모자보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동 지역 산모들이 보다 건강한 임신·출산기회를 보장받고, 신생아들과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번 발간된 모자보건통계집은 코이카가 추진하고 있는 모자보건 사업 목표치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기초조사(Baseline survey) 결과물이다.

통계집 발간을 위해 일로일로주 인구국의 도움을 받아 약 5개월에 걸쳐 9개 Municipality 78,000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일로일로주 최초의 전수조사를 통한 통계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코이카 일로일로 모자보건 사업은 금번 통계작업을 통해 도출된 9개 Municipality 주민 기초모자보건 상태와 의료이용 실태 수치를 바탕으로 진행 예정으로, 이를 통해 해당지역 모자보건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07-29 KOICA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는 연세대학교와 방글라데시 내 최초의 간호 분야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방글라데시 간호전문대학원 설립사업(2012-2018/1,375만불)'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우리 정부의 對방글라데시 무상원조사업 역대 최대 규모이다.

방글라데시 간호전문대학원은 2016년 7월 개원 예정으로 2018년부터 매년 6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총 3명의 방글라데시 교수요원이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총 4년 과정)을 이수중이며, 추가로 34명의 교수요원에 대한 초청연수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로 나뉘어 실시된다.

한편, 코이카는 28일 동 사업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다카 소재 BSM 의과대학에서 연수효과와 지속발전가능성 제고 및 간호 분야 발전방향 모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글라데시 간호 분야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성 제고를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 측 요청으로 2016년 개원 이후 초대 대학원장을 연세대학교 측 책임전문가가 역임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프로젝트 사업기간 중 석사학위 교과과정 개발에서부터 개원 및 1기 졸업생 배출까지의 일련의 대학원 학사운영 과정을 완성함으로써 향후 대학원의 안정적 운영정착 및 지속적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도국에 ‘Can do’ 정신 심는 든든한 자양분

글 | 방그레(역량개발사업팀 대리) 사진 | 홍보실

코이카는 1991년부터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초청연수 사업을 실시, 특히 개도국 공무원들의 자국 응용 능력 배양을 위한 장기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석사학위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코이카의 최장기 연수사업으로, 한국의 성공적 발전 경험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전수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새마을운동 주제로 진행

가. 과정명 : 지역공동체 개발 지도자 양성 과정(2)(Master's Degree Program on Community Development Leadership)

나. 사업기간 : 2014년 8월 18일(월)~2015년 12월 23일(수) / 16개월

다. 참가인원 : 18명(캄보디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파푸아뉴기니,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라. 위탁기관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지역공동체 개발 지도자 양성 석사학위 과정’은 ‘새마을운동’이라는 한국의 성공적 발전 경험을 새로운 국제개발 모델로서 개도국에 전수하는 것에 그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최빈곤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모한 우리의 발전 경험을 새마을운동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다양한 석사 과정에 녹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실제 새마을운동 석사 과정은 연세대학교와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개도국 공무원 및 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교육훈련을 제공해 현지 강사진을 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공동체 변화를 주도해 나갈 올바른 변화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새마을운동 자국 응용, 방법 터득 및 이에 필요한 정책 개발 능력 함양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학위가 수여될 예정이다.

16개월 동안 진행되는 석사학위 과정은 강의뿐만 아니라 산업시찰 및 견학, 주기적인 문화 행사와 세미나를 동반하여 지역공동체 개발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직접 한국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할 수 있다(Can do)’는 자신감, 혁신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다는 개척정신 고양뿐만 아니라 이론교육 및 사례교육 등을 통해 이론과 정신을 겸비한 실행력이 뛰어난 지도자를 배출, 귀국 후 곧바로 자국에 응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본 과정의 기획 배경이다.



유기농 채소와 함께 키운 고국 발전의 꿈

지난 6월, 지역공동체 개발 지도자 양성 석사학위 과정 연수생들은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본부 앞 잔디마당에서 연수생 18명이 직접 재배하고 키운 유기농 채소를 코이카 직원을 상대로 판매한 것이다. 연수생들은 농산물 재배 및 마케팅 경험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협동조합 운영 및 가치 상승 등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이를 위해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약 4개월간의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쳤다.

이날 행사에서 판매된 농산물은 상추, 배추, 브로콜리, 적상추, 양배추 등이며, 총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을 코이카 직원에게 판매했다. 이날 준비한 유기농 채소는 저렴한 가격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전량 판매됐다.

몽골 연수생 간치메그 바산하브(Ganchimeg Baasanjav) 씨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 또한 처음이었다”며 “이런 기회를 안겨준 코이카에 감사하고, 고국에 돌아가서 지금 경험을 발판 삼아 농촌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나 연수생 새뮤얼 다나 씨 역시 “농작물을 재배하고 키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조원들과 같이 마케팅 전략을 짜고 직접 판매를 하는 경험이 새롭고 재밌었다. 가나에 돌아가면 이번 연수에서 쌓은 경험을 꼭 접목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18명의 연수생은 공동텃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수확물을 거두어 판매까지 하는, 공동의 목표가 현실화되는 경험을 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석사 과정 연수를 통해 참여한 개도국 지도자들이 각 분야의 비전을 가진 씨앗이 되길 희망한다. 또한 연수생들이 고국에 돌아갔을 때 누구보다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씨앗이 되고, 개도국의 미래에도 풍년이 잇들길 기원해 본다.

첫째주

-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방문
- ▶ 마산시청(기업사랑과)방문
- ▶ 유관기관방문

GFC 9월 행사 안내

둘째주

- ▶ 2015년 하반기 운전면허고시(4회차)(12:00~13:00)-다목적홀
- ▶ 제 6차 EPS리더 간담회 개최(11:00~12:00)-106호 강의실
- ▶ 바다무지개 동아리 크리켓대회(13:00~18:00)-칠서초등학교
-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09:30~17:00)
- ▶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방문
- ▶ 농축산업사업장 밀착상담 서비스-진주시농업인회관
- ▶ 제 41회 토픽시험 발표

- ▶ 마산의료원 무료진료(15:00~17:00)-센터 상담실
- ▶ 베트남근로자 교류의날(13:00~17:00)-창원문성대학교
- ▶ 산업안전교육 실시(15:00~17:00)-다목적홀
- ▶ 바다무지개 동아리 불꽃대회(13:00~18:00)-창원현대불꽃센터
- ▶ 진주고용센터 이동상담(09:30~17:00)
- ▶ 제 43회 TOPIK시험 접수(~9/23)
- ▶ 외국인력지원센터 전체 WORKSHOP(9/15~9/16)

셋째주

넷째주

- ▶ 2015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행사(11:00~16:00)-마산실내체육관
- ▶ 통영고용센터이동상담(09:30~17:00)
- ▶ 상담원 역량강화교육(15:00~17:00)-다목적홀
- ▶ 농축산업사업장 밀착상담서비스(13:00~17:00)-진주시 농업인회관 1층
- ▶ 추석연휴(9/26)

다섯째주

- ▶ 추석(9/27)
- ▶ 추석연휴(9/28)

GFC와 함께해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를 사랑해주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율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70-4481-6703



070-4481-6702



070-4481-6701



070-4481-6704



070-4481-6705



070-4481-6706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후원해 주셨습니다.

푸드 뱅크	2015. 08.17	음료 11박스
----------	----------------	---------

< 후원계좌 >

경남은행 513-07-이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